

“익산역 주차 걱정 마세요”

시, 대리 주차·픽업 서비스 시행...이용객 편의 제공 주차장 114면으로 확장하고 배상책임보험도 가입

익산시가 익산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대리 주차와 픽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리주차 서비스는 남부공영주차장에서 평일과 주말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현장신청 또는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기존 84면이던 남부공영주차장을 114면까지 확장했다.

주차장배상책임보험도 가입했다. 이용객이 증가하는 주말에는 픽업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차장(205면)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평일·공휴일을 제외한 토요일에 픽업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객들은 익산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간 배차시간에 맞춰 차량에 탑승해 익산역까지 이동하면 된다. 농업실용

화재단에서는 매 시간 정시·20분·40분에, 익산역에서는 10분·30분·50분에 픽업차량이 출발한다.

대리주차와 픽업 서비스 이용료는 각각 1회에 1000원이다.

익산시는 또 익산역 인근 송학동 일원에 50면 가량의 공영주차장과 150대 규모의 주차장이 포함된 주차공원을 조성해 활용공간을 확대한다. 모든 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되면 익산역 주변 주차장 규모가 현재 372면에서 936면으로 250% 증가하게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지자체 이색행정 사례

해남군민 택배 수령 언제든지...

군청 민원실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 24시간 무료 이용 농사일 집 비운 가구 불편 덜고 여성 범죄예방 효과 기대

해남군이 군청 민원실 앞에 택배함을 설치한다. 농사일 등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 데다 갈수록 택배기사 사칭 범죄가 늘어나는 탓에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해남군은 1인 가구 택배 수령 불편을 해소하고 택배기사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 무인 택배보관함인 '여성 안심 택배함' 1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군청 민원실 앞에 택배함이 설치되며, 오는 14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여성 안심 택배함은 주거지 노출 위험과 1인 가구로 직접 택배수령이 어려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계획이다.

택배로 인한 여성 거주자 등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함 이용은 물론 구매 시 배송지를 안심 택배보관함 주소로 지정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해당 택배함에 물건을 넣고 수령자에게 보관함 번호와 인증번호를 문자로 전송하게 된다.

해남군민이라면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택배함을 이용할 수 있다.

48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하루 1000원의 보관요금이 부과되며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내장산 KT&G연수원 부지에 특급 관광호텔

정읍시·전북도·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 투자 협약 252억원 들여 70객실 규모 2023년 완공 목표

수년간 방치된 내장산리조트 내 KT&G 연수원 부지에 특급관광호텔이 건립된다.

정읍시는 6일 전북도·주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KT&G 연수원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유진섭 정읍시장, 김호석 주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 회장,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호텔 건립 부지는 KT&G가 연수원 건립을 위해 지난 2007년 매입해 2015년 착공했으나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채 수년간 방치됐다.

그러나 최근 김 회장이 내장산 골프&리조트와 연계한 숙박시설인 관광호텔 건립 투자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호텔은 사업비 252억 원을 투자해 지하 3층·지상 4층 70객실 규모이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객실과 카페, 레스토랑, 연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과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정읍시와 전북도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처리와 행정 지원을 적극 펴게 된다.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은 관광호텔 건립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했다.

김호석 회장은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관광호텔 조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민선 3기부터 시작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투자를 결정한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에 감사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내장산리조트 활성화로 정읍시가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는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 가 약 86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5년 160만5364㎡(48만여평)의 부지를 조성했다. 공공부지를 제외한 111만7554㎡(33만8000평)의 부지를 민간에게 발하는 민자유치 사업지이다. 현재 민간 분양부지 중 92%인 102만8189㎡(31만1000평)의 분양이 완료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남원시, 월매야시장 활성화 방안 찾는다

상인회·운영자 등 토론회

남원시가 야심차게 운영 중인 월매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남원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월매야시장의 성공을 위해 지난해 발생한 문제점을 짚고 활성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야시장 운영 전문가와 공설시장상인회, 매대운영자,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난해 월매야시장 운영에 대한 분석과 매대운영자 모집 홍보 방안, 먹거리 개선방안, 상인회 및 매대운영자 간의 상생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했다.

침체된 전통시장이 야시장과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야시장 운영에 따른 상인들의 의식



남원시와 공설시장상인회, 야시장 운영 전문가들이 5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월매야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변화 및 야시장 참여방안에 대한 의견 등 시장 상인의 역할을 교환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로 올해 월매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토론회가 됐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월매야시장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에 100억원 특례보증

최대 5000만원 6년 상환

군산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조건은 금리 1.7%에 6년 상환이다.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서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군산시 특례보증 지

원사업’은 군산시에서 재원을 출연해 1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로 낮춰주는 물론 대출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비슷한 특례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대출 조건이 매우 유리하다.

신청 장소는 군산상공회의소 1층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이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엄마의 밥상’에 딸기 후원 전주시딸기연구회는 5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에 딸기(500g) 100박스를 전주시에 기부했다. 이는 완산구 원당동과 덕진구 고량동 등 70농가(31ha 규모)가 직접 재배한 고품질 딸기다. <전주시 제공>

고창군, 전국 최초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고창군은 전국 최초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창군은 2015년 국가 공모사업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인 분만산부인과로 선정돼 운영해 왔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이용률이 높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만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소득과 무관한 보편적 지원형태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지역 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이며, 지원기준은 일반 및 제왕분만시

분만비와 입원비 전액을 지원한다.

보건소는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위원회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고창군의회에서는 분만진료비 지급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고창’을 위해 힘을 모았다.

분만진료비 지원 신청 절차는 분만진료 제공기간에 본인부담금을 납입 한 후,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현숙 고창군 보건의료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증진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스타일

Classic

클래식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스타일